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내년 완료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방문객의 체험장으로 활용

익산시가 그동안 부지확보 난항 등으로 사업추진이 터덕거렸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3개소(다송·천서·천년초)에 대한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이달 중 착공에 들어갔다.

다송권역은 4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부지확보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진주정씨인정현을 시점이 진주정씨 중증 부지 매입을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서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돼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사 선정에 맞춰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이곳에는 다목적실, 공동급식소(체험

관), 카페, 전시장, 동아리방을 도입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복지 및 방문객들의 체험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경관 개선사업으로 매화공산을 조성해 농업기술센터 및 주말농장과 연계, 방문객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천서권역은 3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이 역시 타 권역과 마찬가지로 부지확보에 난항을 겪었다.

감정평가 금액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많아 섣뜻 땅을 내 놓는 토지주가 없었으나 추진위원회와 지역주민들의 계속된 설득으로 부지를 어렵게 확보해 현재 시공사 선정에 맞춰 이달 초 착공에 들어갔다.

활성화센터에는 다목적실, 건강관리실, 주방, 야외 운동시설 등이 도입돼 지역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문화 복지

시설과 운동시설이 확충되고 담월센터 및 마을회관 4개소를 비롯한 마을 진입로 중보도길 2.5km를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천서활성화센터 시설은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인근 공단 근로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 축과 협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천년초 권역은 천년초(선인장)를 테마로 41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지연 주요 요인은 마을 간 갈등이었다.

마을 간 일력이 지속되면서 시행계획이 장기화 되었고 주민들의 피로도도 누적됐지만 사업효과를 고려해 마을마다 양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돼 공사 발주를 앞두고 있다.

천년초 체험관에는 공동 작업실, 세미나실, 소모임실, 사무실 등을 도입하고 노후마을회관 4개소 정비와 함께 경관개선사업으로 깨끗한 마을안길 정비 및 쉼터 등이 조성된다.

천년초 체험관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해 천년초 비누, 천년초 즙, 천년초 팩 등 색다른 체험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천년초 재배를 통한 수익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익산시의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용포·함다·용머리 3개권역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고 미륵산권역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세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개최기에서 신한복까지 라는 주제로 15일 저녁 7시 박물관 야외무대에서 광복절 기념 근대의상 패션쇼를 연다.

강임준 군산시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모든 역량 집중

강임준 군산시장이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도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3일부터 판매를 개시하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을 앞두고 강임준 시장을 비롯해 모든 직원들이 상품권 홍보 및 가맹점 확보에 직접 나섰다

강 시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상가가 밀집된 관내 수송동을 찾아 ‘군산사랑상품권’을 애용합시다’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

고 시민들을 만나 상품권 애용을 호소했다.

또 직접 사업주를 만나 어려운 상황을 청취하고 가맹점 가입 시 좋은 점에 대해 적극 홍보를 하며 직접 가맹신청을 받았다.

군산사랑상품권은 오는 9월 3일부터 10% 할인된 금액으로 관내 농협, 전북은행, 신한, 새마을금고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국비로 보전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군산사랑상품권의 10% 할인 판매로 인해 가계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관외로 이탈되던 고객들의 관내 유입효과로 인해 경영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산사랑상품권의 가맹대상 업소는 대규모 점포, 본사가 군산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직영점, 유흥주점 및 사행성 게임업을 제외한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미용실, 병원, 약국 등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이용 가능한 모

든 업소이다.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는 심사 후 지정여부를 통보하고 지정서와 가맹점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군산사랑상품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며, 시민들이 상품권을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광복절 기념 패션쇼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개화기에서 신한복까지’라는 주제로 오는 15일 저녁 7시 박물관 야외무대에서 광복절 기념 근대의상 패션쇼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야외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패션쇼는 전통한복 디자이너 이혜숙(네추럴에코협동조합 대표)의 작품들로 꾸며져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근대 의상 60여벌을 선보일 예정으로 근대기의 복식을 재조명한다.

근대의상 패션쇼는 근대기 생활환경과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근대의상, 군산명명학교·멜본단여학교·이화학당·정동여학당·송의여학교 등 근대기의 다양한 교육과 근대기 어린이부터 성인까지의 의복을 다채롭게 볼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군산중앙여고 다도 동아리 등 군산시민 60여명이 직접 모델로 나서

런웨이를 걸으며 패션쇼에 생동감을 불어 넣어 줄 예정이며, 근대역사와 패션이 융합된 야간 문화행사인 만큼 ‘사물놀이’, ‘시낭송’, ‘댄스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다.

박물관 관계자는 “광복절이라는 역사적인 시간을 기념하는 날에 근대의상패션쇼를 통해 근대역사를 되돌아보는 새로운 시도로, 근대문화도시 군산의 민족적 정체성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근대의상패션쇼 개최로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군산시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매일 평균 9만 여명의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야행’ 성료...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

70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군산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새로운 야간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큰 호응을 얻었던 군산야행(夜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빛의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더위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색다른 추억과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군산야행’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개최한 문화행사로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문화유산을 활용한 8가지 야간형 테마를 주제로 진행되는 행사다.

올해의 경우 근대문화유산과 어울린 70가지의 다채로운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관람객들에게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며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근대 역사문화의 중심도시 군산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첫 날 개막식 행사로는 해어화 OST,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칸투스, 식전공연과 특별 뮤지컬공연, 안중근의 꿈, 문화유산 3D홀로그램 공연이 특별무대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개막식 이후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시작되는 2km구간에 펼쳐진 군산야행 빛의 거리에서는 근대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행사기간 동안 옛 군산세관, 구)조선은행군산지점, 구)일본제18은행, 동국사 등 군산을 대표하는 15개소의 근대문화유적지와 문화시설을 야간까지 무료로 개방했으며 해당시설 안과 밖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전시회는 관광객들에게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재미를 제공했다.

야행에 참여한 관광객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문화재의 역사와 가치를 현장에서 배우며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의회 역량강화교육

익산시의회의(의장 조규대)가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익산시의회는 13일, 한국지방정부연구원 김희창 원장을 초빙해, 예산심의·결산 심사 기법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 착안사항 및 실천사례 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앞으로 개최 예정인 제21회 임시회와 제22회 1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어서 뜻깊은 시간으로 평가됐다.

특히, 이번 8대 의회에는 초선의원들이 새롭게 진출해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같은 교육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규대 의장은 “이러한 교육이 의원의 발전은 물론, 시민행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 집중점검

익산시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역소재 커피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 플라스틱 컵 매장내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1회용 플라스틱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7월 사전 홍보 활동을 실시한데 이어 이번달부터 현장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단속내용은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여부로, 현장확인시 사업자가 매장내 일회용컵 사용불가 고지여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안내문구 부착 홍보 등 규정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 위반 사업장은 매장규모 등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위해서는 시민들이 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성과 위주의 단속보다는 제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